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2월 2일(금)
(윤력 12월 23일)
Пятница
2 февраля 2024 г.
№ 4 (1207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30일(화)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기념 박물관에서 <사할린의 전통, 이는 우리의 자랑> 전시회가 열렸다 (주정부 제공)

참전전몰장병의 가족, 사할린 주지사와 만남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특수군사작전 중 전몰한 장병의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전몰장병의 가족들은 여러 요청안을 가지고 주지사를 만났다. 모든 요청안은 주지사의 개인적 통제 아래 접수되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들들은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바쳐 공적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봅니다."라고 주지사가 언급했다.

한 미망인은 주지사와 면담에서 아버지의 가르침 없이 아들들을 키우는 게 어렵다며, 어머니는 단지 사랑하고 아낀 수만 있다고 근심을 털어놓기도 했다.

면담에서 전몰 영웅들에 대한 불멸의 추모도 제기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지난해 특수군사작전 참전 전몰장병을 기리는 기념비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정책이 국내 전 지역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현재 누구든 지역 수장에게 다양한 요청을 가지고 면담을 청할 수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지원책 조성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장작을 패는 일상의 도움, 지붕을 고치는 일, 누군가는 취업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주 정부는 주민들의 각각의 요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사할린주의 성과에 대한 전시회 개최

1월 30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기념 박물관에서 <사할린의 전통, 이는 우리의 자랑>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사할린 지역의 역사와 문화, 핵심 산업의 발전, 교육 및 의료, 건설, 사회정책, 관광, 스포츠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대형 에너지 및 농산업시설 모형과 무인기, 기록사진과 정보 게시판을 찾아볼 수 있다.

전람회 개최에 앞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의 전통, 이는 우리의 자랑〉 전시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전시회의 주제가 정말 딱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막을 내렸고, 제2차 세계대전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적 사건들에 참가했고, 이후 사할린에 평화로운 삶을 건설한 우리의 동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석유·가스산업과 수산업, 농산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전 산업분야의

종사자들이 자랑스롭습니다. 이분들 덕에 사할린 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상 및 사회적 진출을 위한 멋진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시회는 사할린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 석유가스산업의 성과로 시작된다.

또 하나 사할린의 자랑은 어선이다. 가장 큰 부동 기지 중 하나에서 현대적인 어선 모형을 보면 어선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사할린 주는 생선가공산업의 선두에 서 있으며 향후 3년간 생선가공량을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할린의 농산업을 주제로 한 전람회는 과거와 미래의 다리가 되었다. 관람객들에게 사할린의 토지 소유주들이 이미 작업에 적용하고 있는 추적차량과 무인기도 소개된다. 특별 전시로 특수군사작전의 사할린 참전병들과 이 작전을 적극 지지하는 주민들을 주제로 한 전시 코너는 주목할 만하다. 전람회에서는 군복, 무기, 각종 전투장비들도 전시된다.

사할린에 가스관 사고 처리

1월 29일(월) 아나와 지역 트로이츠코예 마을에서 제설작업 중 저녁에 가스관 개폐장치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 1,048명을 포함해 주민 5,243명이 거주하는 430가구와 3채의 개인주택에 가스공급이 차단된 상태가 되었다. 이 분야 작업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파손된 개폐장치가 있는 곳을 파내기 시작했고, 사고가 발생 곳에서 사할린 비상대책부의 긴급대책반이 출동해 작업을 한 가운데 가스공급이 끊어진 이 마

을 주민들에게 난방을 대신할 장비들을 제공했다.

이날 저녁에 가스관 비상상태 여파 처리로 긴급대책반을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방문해 겨울 난방은 되도록 신속하게 수리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주거지역의 가스공급을 복구하여 가정에 온기를 되찾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전문가들이 전력을 다해 복구를 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자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단신

러시아 방위군 사할린주 관리국 새로운 국장 임명

사할린주 러시아 방위군 국장직에 보리스 체스노코브 경찰 대령이 임명되었다. 1972년생의 보리스 대령은 페르미 출신이다. 1990년-1992년까지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 2006년에 러시아 내무부 동부-시베리아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치타에서 특수기동부대에서 직업 군인으로 근무, 특수부대에서 다양한 지휘직에서 종사했다고 전해졌으며, 북 캅카스에서 군사작전에 참가, 2021년에는 러시아 연방 국가방위군 하바롭스크 변경 관리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강력 풍설 여파 처리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전역에 강력한 풍설로 인한 문제들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 주요 대로의 적재된 눈을 치우고, 블라디미롭카 주택가 구역을 포함해 계획된 구역들의 제설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한 공화국의 국민, 테러 지지로 구속

사할린주의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이 중앙아시아 한 공화국의 국민을 구속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테러를 지지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구속 기소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들 2월 5일까지 원격수업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강력한 풍설로 지난 1월 24일부터 학교 학생들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시청은 학교 진입로와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제설하고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도로정비작업을 하는 관계로 2월 5일(월)까지 계속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바이러스 감염률 감소

사할린주의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1월 21일-27일 일 사할린주에 급성호흡기질환과 코로나 19 감염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힌 가운데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자도 있었다.

급성호흡기질환에 1839명이 감염되었고, 폐렴은 67명으로 전주대비 33.7%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이고, 그중 17세 이하의 학생은 7명으로 밝혀졌다.

사할린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은 경증이 47.6%, 중간 정도의 증상이 52.4%로 나타났다. 또한 급성장염도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평가되며, 지난 한 주간 60명이 감염됐고, 그중 아동이 52명으로 86.7%에 해당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은 2명이 등록되었다.

KIN 대표단, 4년만에 사할린 방문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월 27-31일 간 사할린을 KIN(지구촌 동포연대)단체의 최상구 대표가 다녀



갔다. 이번에 그와 함께 킨의 영상기록작업을 봉사로 도와주고 있는 '이스크라 21'제작사의 김지운 대표가 동행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사업으로 잘 알려지고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 역사 알리기 활동을 해온 킨 대표는 항상 그랬듯이 달력을 만들면 해마다 1월에 사할린을 방문하고 지방을 다니며 1세 어르신들을 비롯해 동포들과 만남을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1주일간 사할린 방문 일정은 4일간의 강한 풍설로 인해 4일로 축소되고, 차단된 도로 상태로 지방 스케줄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 활동가들은 코르사코브만 다녀오고 어르신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할린 방문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협조로 이루어졌고 최 대표와 김 감독은 주한인협회의 일부 임원,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 사할린주향토박물관 부장 진 울리아 역사학 박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교사 등과 만나 취재했다.

31일(화) 오전에는 최상구 대표와 김지운 감독은 새고려신문사를 찾아 배워토리야 사장과 이예식 사진기자와 만나 사할린한인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지난 31일 오후 새로 생긴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의 임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한국 대표단은 사할린주한인협회, 코르사코브 한인회와 사할린한인연합회에 한복 여러 벌과 사할린 동포 귀환 운동으로 잘 알려진 이희팔 선생의 '유언'구술기록 책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국 활동가들은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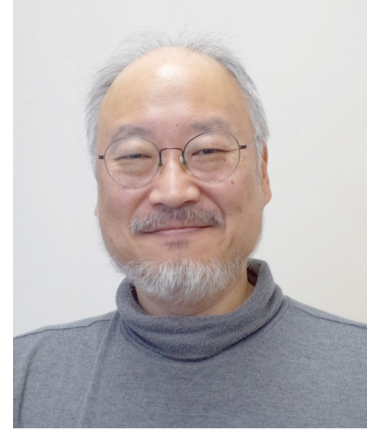
(본사 기자)

KIN단체, 사할린한인문제 계속 추진

사할린한인문제를 잘 알고 다루는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가 일전에 사할린을 방문해 본사 배순신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4년 만에 사할린을 오셨는데 풍설 때문에 지방도 제대로 못 다녀오셨지요.

- 네, 몇 십년 만의 풍설이라 하더라도요. 원래 비행 스케줄이 수요일 도착인데 토요일 오전에 들어온 거지요. 지방에도 가고, 예전처럼 지역의 어르신들도 잘 계시는지 뵈고 싶고 그랬는데, 도로 사정 때문에 다른 지역은 많이 못가고, 코르사코브만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반가웠고, 얘기를 듣다 보니, 예전에 찾아갔을 때 밥 잘 차려 주셨던 이병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이날 어르신 한 10명 정도 나와 계셨고, 코르사코브한인회 박창순 부회장이 나오셔서 식사준비도 다 해주시고 하셔서 어르신들과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떡도 같이 먹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특별법이 이번에 바뀐 것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셨고, 한국 쪽이나, 국



회에 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국에 돌아가시면 이런 내용들을 재외동포청에 전달하실 계획인지요?

- 우선은 영상을 하시는 김지운 감독과 같이 왔기 때문에 동포들 목소리를 잘 담아서 영상으로 하나를 만들어볼 생각이구요. 이제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국회 의원들에게도 6월이면 소속 상임회가 다 정해지니, 7월, 8월 정도면 의회위 소속의원들에게도 '사할린동포지원 특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포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국회와 재외동포

청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 사할린주한인협회 측과 앞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는 나누셨는지요?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 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있는 장면들도 저희가 봤고요, 사할린 한인협회 부회장인 이 세르게이 부회장과 만나서 거의 처음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여러 번 만났는데 자세한 얘기를 아직 나누지 못했고 오늘 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고려인 이주, 한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지 16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해서, 고려인, 사할린 동포 이렇게 꼭 나눌 것만은 아니고,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차원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한국 쪽에서는 9월 추석 바로 전주에 방문단을 모집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방문을 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면에 계속)

이모저모

사할린에서 <봉쇄시기의 빵> 행사

1월 27일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시 지역에서 <봉쇄시기의 빵> 전 러시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행정부의 홍보실이 전했다.

이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는 나치에 포위되어 참혹한 봉쇄 속에서 살아남은 레닌그라드 주민들의 강인한 정신을 상기하기 위함이다. 전 러시아 추념행사로서 주요 상징은 125그램의 빵조각이다. 이는 가장 어려웠던 봉쇄시기에 사람들에게 배급된 하루 식량이었다.

"야방가르드"지역문화센터에서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행정부 소속 청년위원회 자원봉사자들과 '육차브리' 지역문화회관, '스투페니' 청소년 운동 및 '통합 러시아 청년 근위대' 우글레고르스크 지부 대표들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영웅의 상징을 나눠 드렸다."고 우글레고르스크 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акция «Блокадный хлеб»

В Углегор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7 января прошл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памяти «Блокадный хлеб».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Акция проходит не первый год. Она призвана напомнить людям о силе духа жителей Ленинграда, попавших в осаждение фашистов и переживших тяжелейшую блокаду.

Главный символ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памяти - кусочек хлеба, который весит всего 125 граммов. Именно столько выдавали людям в сутки в самые сложные дни блокад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КЦ Авангард, волонтеры молодеж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ГО, РДК «Октябрь»,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Ступени» и Углего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Единой России» вручили символ подвига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района», - добав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округа.

<러시아의 심장> 가정 화덕의 불, 사할린에 도착

<러시아의 심장> 가정 화덕의 불이 사할린에 도착했다. <러시아> 전람회에서 극동지역과 북극의 날에 극동 연방구 전 지역으로 이 성화를 전달했다고 주 정부가 전했다.

채화식에 참가한 짜셀로위츠 가족이 성화를 유즈노사할

린스크에 전달했다.

짜셀로위츠 가족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우리 사람들 - 사랑스런 사람들> 전 러시아 가족 포럼에 사할린 지역 대표로 참가했다. 전국 각지의 명문가문들이 참가한 행사였다. 사할린으로 성화 이송은 사할린에 몰아친 풍설 때문에 전 교통편 운행이 차단되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짜셀로위츠 다자녀 가족을 사할린주 사회복지부가 동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출발 및 숙소에서부터 현지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방문의 전 과정에 사할린 주민들이 함께 했다. <러시아의 심장>을 위한 성화는 성 베드로와 페브로니아의 고향인 무롬에 있는 성 삼위일체 수도원에서 가져왔다.

На Сахалин доставили огонь семейного очага «Сердце России»

Огонь семейного очага «Сердце России» прибыл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Ден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а выставке «Россия» его передали во все регионы ДФО.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ставила огон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мья Тишелович, которая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жжения.

Напомним, в Москве семья представляла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семейной форуме «Родные - Любимые».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династии со всей страны. На Сахалин огонь доставляли дольше всего из-за снежного циклона, который захватил остров и заблокировал работу все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Многодетную семью Тишелович сопровожда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специалисты были с островитянами на всех этапах поездки - от отправления и размещения до помощи в решении лок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Добавим, огонь для «Сердца России» привезли из Свято-Троицкого монастыря в Муроме - Родины святых Петра и Февронии.

러시아의 유명 셰프-요리사들, 사할린에서 '나바즈니 페스트' 전개

처음으로 <나바즈니 페스트(나와가 축제)> 미식 마라톤이 새로운 형식으로 전개된다. 2월 5일부터 10일까지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 최고 셰프와 요리사들이 요식업체 참가자들의 요리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이 행사는 국제 포도주요리센터의 회장이자 러시아 사업연맹 이사회 회원인 레오니드 켈리브테르만이 진행한다. 미식캠프의 일환으로 최고의 셰프-요리사들이 식사를 맡아

<나 바즈니 페스트>를 위해 특별히 사할린 셰프-요리사들이 만든 요리를 평가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대규모 미식축제 중 하나로 사할린의 셰프-요리사들을 위한 일련의 활동고실도 열린다. 방문객들은 전문가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현대적 높은 수준의 요리 비밀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먼저 유명 요리사들이 사할린의 식자재들을 접하는 것은 요리의 출발점으로 창작이 시작된다.

일련의 행사 결과물로 지역 특산품이자 요리의 주인공인 코류슈카와 나와가로 만드는 사할린 조리법이 담긴 요리책이 만들어진다. 이번 미식캠프는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사할린의 16개 요식업체들에서 진행되는 <나바즈니 페스트> 미식축제의 스타트가 된다. 고객들에게는 두 가지 요리를 제공하는데 이는 950루블리 가격에 요리세트와 시즌 생선으로 만든 특별 창작요리이다.

Известные шеф-повара России преобразят «НаВажный фест» на Сахалин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НаВажный фест»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нется с гастроэкмпа. С 5 по 10 февраля команда топовых шеф-поваров России буде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блюда заведений-участник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ущим лиц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ет 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но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и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туриндустрии Леонид Гелибтерман. В рамках гастроэкмпа шеф-повара команды хэдлайнера выступят в роли судей, оценивая блюда сахалинских шеф-поваров, созданны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НаВажного феста».

Кроме того, на одном из крупных гастропространст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йдет сери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для островных шеф-поваров.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наблюдать за работой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узнать секреты современной высокой кухни. Прежде всего команда известных поваров познакомится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продуктами, что и станет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Итогом серии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нет книга с островными рецептами из местных продуктов, где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блюд станут корюшка и навага.

Отметим, гастроэкмп даст старт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у фестивалю «НаВажный фест»,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16 по 29 февраля в 16 заведениях острова. Гостям предложат два варианта подачи блюд: сеты по единой фиксированной цене 950 рублей и отдельные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из сезонной рыбы.

(8면에 계속)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중국 점성술 전문가로 인정 받은 한 이리나 약사

지난 1월 28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가까운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가 추진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의 일환으로 중국 점성술 바지(Bazi) 전문가 한(전) 이리나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하바롭스크 약학대학 대학을 졸업한 그는 약 30년 동안 고급 전문 제약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로로 '노동의 베테랑' 메달을 받았다.

7년 전에 그는 재미로 중국 점성술 바지(Bazi)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사할린에서 인기있는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가 좋은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근 러시아 거주하는 중국 사업가들도 그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통 '사할린 만남'에서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그의 창작, 삶을 통해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번 모임 주제가 음력설을 맞이해서 점성술에 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떤 해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사건이 있을 지, 어떤 직업이 인기가 많을 지, 어느 분야에서 일하면 재정이 좋을 지 등등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Bazi, 일명 '운명의 네 기둥' 또는 '팔자'는 탄생 시간, 월, 일, 시를 분석하여 개인의 생애의 복잡한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는 중국의 고급 점술 형태다. 'Bazi'는 '팔자'를 의미하며, 이는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추론된 네 쌍의 문자를 나타낸다. 이 고대 시스템은 중국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운명, 성격의 특성, 그리고 삶의 경로를 암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한 이리나는 이 점성술을 그저 재미로 배우기 시작했고, 딱히 믿지도 않았다. 그러나 배울수록 이 점성술이 과학적이라 믿게 되었다며 섬세한 사람으로서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하였다.

이날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 들던 참석자들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거의 3시간 듣고, 물어보며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간을 보냈다. 한 이리나는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시도 쓰고, 음악도 즐기고, 10년간 야람 무용도 익히며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기도 했다.

(배순신 기자)

<27회 체호브 강론>학술회의, 사할린에서 개최

1월 29일(월) 안톤 체호브의 탄생일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7회 체호브 강론> 지역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행사는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과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학술회의 개막식에서 사할린주 정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는 사할린 지역에서 작가의 인격과 창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체호브 강론>에 언어학자, 역사학자, 향토 연구가, 교육 및 문화계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53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이들 중 16명은 이공계 준박사이고, 3명은 이공계 박사다.

<27회 체호브 강론>에 귀빈으로 초대된 평가위원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위노그라도브 러시아어대학의 연구자이고, '그라모타 루' 포털의 학술 지도자이며, 러시아 연방 대통령 소속 러시아어위원회 회원이자 언어과학의 준박사인 블라디미르 파호모브다. 학술회의는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는 <체호브 창작 연구의 언어적 측면>을 토론했고,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는 <문화기관의 사회적 경험>을 토론했다. '로스트' 아트공간에서는 <수업 속 체호브의 소설들> 부분을 진행해 유치원에서 체호브의 작품연구에 대한 기획과 '사할린 섬' 책으로 학교 교과서 제작 기획을 검토했다. 체호브 센터에서는 박물관 직원들과 고문서 및 사할린주 역사의 다른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역사적 향토연구>부분을 진행했다. 박물관에서는 <체호브 강론>과 함께 <체호브와 사할린>이라는 제26회 청소년 콘퍼런스가 열렸는데 이에 기록적으로 20명 이상의 발표자가 참가했다.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무르주의 시마놉스키 시 학교 학생들이며, 이외에도 체복사르 시와 아무르주의 찰린다 마을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동영상 통해 참가했다. 학생들은 발표를 통해 안톤 체호브의 여정을 더듬어 보며 문학창작과 향토연구 및 관광적 측면도 살펴보는 등 흥미로운 주제들을 발표했다.

(2면의 계속)

사할린 한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할린 각 지역을 다 대표하고 있고, 모든 것에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서 개인이나 회장을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할린 한인협회라는 큰 단체와 킨이라는 단체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것이 10년이 넘는 상황이니, 이것 자체가 쉽게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하고, 사할린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엇그제 진 율리아 박사님 만났는데, 작년 10월에도 문서가 공개된 것이 있더라고요. 포로나이스크에서 조금 더 위쪽인 북쪽 바다 지역인데, 거기서 3명에 대한 학살 사건, 그러한 내용들이 새로 공개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아직도 이렇게 밝혀내고 드러내야 하고, 적어야 하고, 기록해야 하고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한인 역사에 대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사할린 동포법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연구조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 2년 동안 예산이 쓰인 것이 없어요. 동포법 만들고, 첫 자녀들을 포함해 영주귀국을 했던 그 해에는 1억 5천만 원 소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념식과 사진전을 한 것이 전부였고, 그 다음해와 작년, 2년 동안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쓰인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비밀문서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 서 연구해야 하고, 밝혀야 하고, 하는

KIN단체, 사할린한인문제 계속 추진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단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의원실들에게 자료들을 보내면서 이런 것을 국정감사 때 질문하면 좋겠다고 계속 내용들은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런 식의 활동들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사망하신 1세대분들의 자녀들이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서 수많은 2세대들이 부당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에만 아니라 러시아 및 CIS 여러 사할린한인단체들이 이 문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분열된 한인 단체가 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인협회 말고도 다른 단체도 있는데, 사할린 동포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1세대 분들에 대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활동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2세대 분들이 한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선의의 경쟁의 과정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방금 우리 신문에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에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과 관련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역시 1세대 부모 사망 자녀들의 입장,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로 포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이런 청원서나 내용들이 꾸준히 재외동포청, 한국 정부, 국회 이런 곳들에 계속 호소를 해야 합니다. 사할린 한인연합회에서도 보내고, 영주귀국하신 분들도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그래야 '아직 이 법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사할린 동포들에게 어떤 의견인지 물어어도 사할린 현지보다 한국에서의 상황들만 보고 법을 바꾸는 상황이라서, 사할린 현지에서의 동포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각지대가 없이 동포사회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영주귀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국 정부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제대로 된 작업이 됐다.'하기보다 '뭔가 불평등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타협해서 동포사회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이라기 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에 생겼던 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 피해 당사자는 사실 거의 다 사망했거든요. 그러면 후손들이라도 국가에 청구해서 영주귀국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녀들까지 다 데려올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거나, 시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라는 생각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라고 생

각하는데, 자주 예산문제로 따질 수 없는거죠. 국가의 의무라고 명확히 인식을 하면서 사할린동포 문제에 대해서 정책들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기밀이 해제되고 있는 여러 학살사건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서들도 확보를 하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공개하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진 율리아 박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죽인 사람들이 경찰관들이거든요. 당시 일본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살해인 것인데, 이런 전쟁범죄에 대해 일본의 책임도 물어야 하고,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유해를 찾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 박사님이 보여주는 문서에는 매장위치 등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찾아가서 발굴을 해서 국내 유족들을 찾을 수 있으면 유족들에게 인계를 하고 보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인 거잖아요. 그런 입장, 그런 생각 속에서 사할린동포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엔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세상에 하나 뿐인 달력'을 제작할 때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달력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요?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배로 보내는 운송비용이나 인쇄 및 제작비용이 해마다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7년 정도 후원을 했던 NH농협생명에서 후원을 중단해서, 그 비용만큼 위기가 있었는데, 사할린 동포분들도 후원을 해주시고 그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후원 기업을 찾아야 하고, 달력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만들어 보내다 보니, 제가 그만하고 싶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동포분들이 '이제 그만 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대표님께서 사할린동포사에서 잘 알려진 '사할린. 얼어붙은 섬' 책을 내셨는데 후속 작품을 출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그 책을 낸 것도 거의 10년이 됐네요. 그 이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진 면들도 있고, 사실 그때는 잘 모르면서 그냥 썼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이나 그런 것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할린동포와 관련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책으로 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써지지 않네요. 한국에 들어가면 일에 치이다 보니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하는 일들에 미뤄지게 되네요.

- KIN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문제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 올해도 재외동포 관련된 활동들은 이어나갈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라는 단체에서 연대 팀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조선학교와 관련된 한국과의 교류나 지원사업들을 연대 팀장의 역할로서, 킨의 대표로서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킨에서 오랫동안 해온 우도로평화기념관과의 연대활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 꾸준히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시고,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ыйти из тени предубеждений

В Корею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800.000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а долю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 кореинов или коре-сарам -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100.000 человек. У многих из нас такой же разрез глаз и цвет волос и лишь акцент или не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мы - другие. Порой нас воспринимают здесь как иностранцев, как вегукинов. И относятся с предубеждением....



Учрежденное в июне 2023 года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동포청) ставит своей целью заниматься проблемами не тольк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но и тех, кто вернулся или возвращается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Безусловно, мы все хотим, чтоб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условия приёма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и нашим ожиданиям. Но ещё больше мы бы хотели, чтобы сами люди, местные корейцы, относились к нам как братьям и сестрам.

Недавно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оздало видеоролик "편견의 그늘" (В тени предубеждений), героями которого стали Квон Геннадий Сергеевич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репатриантов), Но Александр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кореянка-студентка из Новозеландии. Возможно, если мы больше будем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себе, 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мыслями и чувствами, мы сможем изменить отношение к себе и выйти из этой тени предубеждений...

30 января в Инчхоне состоялась очень важная встреча между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АКРК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есять активистов ассоциации - Но Александр (президент), Цхай Евгения (вице-президент), Тен Жанн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н Анна (член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глава отделения АКРК Инчхон), Пак Татьяна (член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Лим Наталья (отв. секретарь), Пак Вячеслав (глава Союз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КРК), Хам Евгений (глава отделения Чунбук), Ли Михаил (глава Сеуль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н Даниил (глава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АКРК) выступили на этой встрече, защищая интересы нашей русскоязычной диаспоры.

Тен Жанн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КРК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ясняется судьба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России

Москва/Сеул, 25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Завод Samsung Electronics в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был закрыт после начала спецоперации в Украине, может быть продан или передан в аренду местной компании, пишет издание The Chosun Daily со ссылкой на российский новостной источник.

Российский дистрибьютор бытовой электроники VVP Group может производить электронику на заводе Samsung в Калуге под Москвой, сообщило 23 января российское издание «Коммерсантъ».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ям, VVP Group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о покупке или аренде лини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телевизоров на конкретном заводе с намерени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ее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дукц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бренда, а также товаров сторонн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сообщается, что VVP Group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а другой продукции, включая стиральные машины, на заводе в будущем.

«Планов продавать завод в Калуге нет», — цитирует «Коммерсантъ»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Samsung Electronics, добавляя, что VVP Group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не ответили на запросы о подтверждении.

Калужский завод Samsung Electronics производил телевизоры, холодильники и стиральные машины с момента своего завершения в 2008 году, но в феврале 2022 года, когда произошел украинско-российский конфликт и начались западные санкции, завод был закрыт в марте того же года из-за проблем с поставками комплектующих. Иностранцы производител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такие как LG Electronics и немецкая Bosch, наряду с Samsung Electronics, останови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в России после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По данным «Коммерсанта», дистрибьютор электроники DNS,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обсуждает сделку по аренде завода LG Electronics,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од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для китайс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Kopka.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завод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инадлежащий Hyundai Motor, который был закрыт во время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был про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ирме ООО «Арт-Финанс». Продажа была произведена на условии обратного выкупа, что означает, что Hyundai может выкупить завод через два года. Недавно российская компания перезапустила завод почти через два года простоя и планирует возобновить сборку автомобилей к середине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KIN побыв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конце января на Сахалине побыв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KIN (KIN –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Че Сан Гу и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Искра21(Iskra21)" Ким Джи Ун.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KIN(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же много лет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о нерешенным проблем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более 10 лет занимается проектом изготовл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лунного календар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Обычно каждый год в январе Сахалин посещает делегация, которая ездит по районам, встречается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особен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го поколения, записывает их рассказы и привозит им в подарок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Но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могли приехать в этот раз впервые за 4 года.

Их ждало нелегкое испытание, вылетев из Кореи во вторник 23 января, из-за снежной бури они смогли добраться до Сахалина лишь в субботу 27 января. Непростая обстановка не позволила съездить по районам, как планировалось. Они смогли побывать лишь в Корсакове, где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го поколения, услышали их истории, чаяния, поговорили о Спецзаконе п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и посетили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ком Юлией Дин, директором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ой Ли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ШИ «Этнос» и др. 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лагодарны РООСК,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зиденту Пак Сун Ок,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их визита на Сахалин.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переговоры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РООСК и KIN. Напомним,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одолжается более 10 лет.

30 января Че Сан Гу и Ким Ди Ун посетили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где поговорили о проблем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али интервью для газеты.



В этот же день он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активом вновь созданной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главе с Ким Хон Ди.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ередали в дар РОССК, АСК, ДШИ «Этнос» 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 ханбок, а также книгу воспоминаний И Хи Пхаль, быв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репатрировавшегося в Японию и ставшего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Движения з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ходе визита были собраны м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обенно 2-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покинули мир, так и не дождавшись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по поводу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п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ыл также собран немалый материал о том, как на Сахалине сохраня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развивается и сохраняется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и язык. Видеоматериал, гд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дать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т.д.,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новых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Гости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во вторник, 31 января. Несмотря на сжатые сроки поездки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выполнена по максимуму.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Что нас ждет в Год Дракона?

28 январ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а очередная встреч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редакции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Героем встречи стала Ирина Хан, провизор аптеки №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рина – серьезный опытный специалист, за успехи в области фармаци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ощрялась. В ее копилке наград есть медаль «Ветеран труда».

Ирина – человек разносторонних интересов. Пишет стихи, интересуется музыкой, занимается арабскими танцами,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ях в Москве и Шанхае, призер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нкурсов. А 7 лет назад в ее жизнь вошла китайская астрология Бацзы, и с тех пор Ирина посвящает этому увлечению немало времени. Ее консультации как специа-



листа Бацзы востребованы даже среди настоящих кита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работающих в России. В этот раз встреча проходила немного в необычном формате. Вместо разговора по душам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услышали лекцию о тенденциях Года дракона, о переходе в 2024 г. в но-

вый астрологический период. Ну, и конечно же,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предсказания согласно восточному гороскопу. Кстати, Дракон приходит к нам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10 февраля, а по солнечному астрологическому календарю 4 февраля.

Встреча настолько захватила участников, что 3 часа пролетели незаметно.

Напомним, чт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рганизует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За это время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встреч побывали директор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Жанна Тен, писательница Виктория Цой,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поэт-песенник Тэхо Чан, бард Сергей Хан, актер и режиссер Александр Ли и др.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Эксгумация» на Берли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Сеул, 1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ий мист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Эксгумация» приглашен на Бер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этого года, который стартует в этом месяце, сообщил местный дистрибьютор фильма. Фильм с Чхе Мин Сик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будет показан в секции Форума 74-го 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откроется 15 февраля и продлится десять дней в Берлине, сообщает Showbox.

Сюжет фильма режиссера



Чан Чжэ Хена «Эксгумация», также известного по-корейски как «Памье», вращается вокруг

таинственных событий, затрагивающих гробовщика и дуэт молодых шамано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и эксгумируют могилу предка из богатой семьи за большую сумму денег. Фильм, в котором также снялись Ким Го Ын, Ю Хэ Чжин и Ли До Хен, выйдет в местных кинотеатрах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Ранее на фестиваль в этом году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два друг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 комедия «Облава: наказание» с Ма Дон Сок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и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Чжон Ю Ми «Кру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сообщил об успешных испытаниях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Новы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подвод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ульхвасаль-3-31» точно поразили заданные цели, пролетев над Восточным морем 7.421 и 7.445 секунд.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тем самым уточнив, что были запущены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две ракеты. Между тем, более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в частности, о дальности полёта ракет, в сообщении не приводится. Как сообщил ранее Объединённый комитет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28 января около 8 часов утра из района города Синпхо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Намдо в восто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ыла запущена серия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ый наблюдал за испытательными запусками, заявил, что «ядерное вооружение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является неотложной задачей времени и основ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для созд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ядерн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Он обсудил с военными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атом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и других новых типов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Атомная подводная лодка включена Пхеньяном в список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разработок, наряду с гиперзвуковой боеголовк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ми спутниками и твёрдотопливным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Первые испытания новой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Пульхвасаль-3-31» состоялись 24 января. Позднее Пхеньян уточнил, что это ракета подвод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летают по низкой траектории и хорошо маневрируют, что позволяет им уклоняться от средств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Запуски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не являются прямым нарушением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запрещающих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хнологи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о делу жертв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бязал японскую компанию FUJIKOSHI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южно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осуществлявшейся в 1940-е годы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го аннексирования. 25 января Верховный суд по итогам рассмотрения дела судом апелляционной инстанции частично удовлетворил иск жертв мобилизации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поданный против FUJIKOSHI. Суд постановил, что базовый договор об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Кореей, заключенн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двух стран в 1965 году, не является основанием для упразднения права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на требование о выплате компенсац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заключении суда говорится, что FUJIKOSHI должна выплатить жертвам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 100 млн вон (75 тыс. долларов) компенсации и покрыть убытки, связанные с задержкой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Истцами выступают пять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в Японию на принуд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5 лет. Они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опасной работ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запчастей для самолётов и бомб.

В РК ужесточают требования к медстраховке

С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иностранцы и граждане РК,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иждивенцев при оформ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страховки по истечении шести месяцев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Речь идёт о случаях, когда их имена вносятся в страховку близко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находящегося в РК. 24 янва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сообщили,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медстраховании»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с 3 апреля. Прежд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писаться в страховку официально трудоустроенного корейца, иностранец или гражданин, проживающий за рубежом, должен был доказать близкое родство,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критериям по доходу и имуществу. А с апреля к этому добавляется норма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более шести месяцев. Ужесточение правил нацелено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случаев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м системой страхования РК, при которых иностранцы и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корейцы въезжали в страну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лечения за счёт страховк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и этом они оплачивают намного меньше денег, чем в той стране, где они проживают. Между тем, исключением применения нововведения являютс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дети, студенты, супруги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граждан РК, обладатели рабочей визы E-9, имеющие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и брачную визу F-6.

Повар Пэк Чон Вон будет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минобороны РК

26 янва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и глава компании THE BORN Пэк Чон Вон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целях улучшения питани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 февраля этого года популярный в стране повар Пэк Чон Вон будет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минобороны по ряду вопросов. Это разработка кухонных приборов и рецепто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оенных поваров по окончании службы.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надеются,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эк Чон Воном улучшит качество питания и предоставит военным поварам ценный опыт. (RKI)

Импорт инвестиций зашкаливает

Сеул, 31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В 2023 году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евысили рекордный уровень в 32,7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Рост обусловлен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запчастями 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таким как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вторичные аккумуляторы и би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увеличился на 7,5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до 32,72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за 2023 год.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всю историю.

В разбивке по странам инвестиции из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ЕС) сократились на 17,0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до 6,22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из-за базового эффекта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2022 году. Однако в Южной Корее резко увеличился приток инвестиций из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Франция (объем составил 1,18 милли-

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при росте на 447,8 процента), где в 2023 году состоялись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с участием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Инвестиции из основных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составили 9,82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увеличивши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21,6 процента.

Инвестиции в нов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водов и предприятий, достигли рекордных 23,54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что на 5,5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ожидает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ффектов, таких как создание достой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передача технологий. Инвестиции типа слияний и поглощений (M & A), которые компании осуществляют с целью приобретения компаний или объектов или создания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выросли на 12,9 процента до 9,18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Министр в отставке, но с хорошей работой

Сеул, 1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Южной Кореи Кан Ген Хва назначена но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Азиатского общества, глобаль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нимающейся углублением понимания Азии, объявил ее попечительский совет. Кан, которая занимала пост главного дипломата Сеула в 2017-2021 годах, станет 9-м президентом и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Азиатского общества, ее назначение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в апрел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своей карьеры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Кан был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на ценностях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и мира. Она долгое

время разделяла и поддерживала цели Азиат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организации. «В качеств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на возглавляла усилия Кореи по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в Азии,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я с коллегами в Азии и по всему миру», — добавлено в нем.

Основанное в 1956 году Джоном Д. Рокфеллером третьим, Азиатское общество является беспартийным учреждением с крупными центра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зданиями в Нью-Йорке, Гонконге и Хьюстоне, а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филиалами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Маниле, Мельбурне, Мумбаи, Нью-Дели, Париже, Сан-Франциско, Сиэтле, Сеуле, Сиднее и Токио, сообщается на его веб-сайте.

Каждый третий трудоспособный будет иностранцем

Сеул, 29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Согласно анализу, до 96 000 новых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ут въезжа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ежегодно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50 лет. При т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если реализуется наихудший сценарий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каждый третий человек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ет иностранцем к 2072 году.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и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2022 год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стигло 1 752 000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ноябрь 2022 года. Среди них число людей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64 лет составило 1 562 000. Это составило 4,3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в 36 686 000 человек.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резко возросло. За семь лет их числ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8,5 процента и составило более 1 700 000 с 1 364 000 в 2015 году.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а тенденция к росту сохранится и в будущем. Согласно прогноза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относительно будущего населения на период с 2022 по 2072 год, ожидается, что чист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миграция иностран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останется в среднем на уровне 96 000 человек в год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50 лет. Если эта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

нится и материализуется пессимистический сценарий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большо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в Южной Корее, ожидается, что численность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сократится до 16,67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в 2072 году.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может вырасти до 36,7 процента. Через 50 лет каждый третий человек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ет иностранце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реи публикует отдельны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гнозы на период до 2040 года, которые отражают чист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миграцию и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с учетом этого.

Согласно оценкам за апрель минувшего года,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ет сохраняться в среднем на 5000 человек в год до 2025 года, затем постепенно снизится и с 2035 года сократится на 1000 человек. Темпы снижения будут медленнее, чем у южнокорейцев, но тенденция к снижению станет такой же 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Если эта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нится, то в 2040 году, через 16 лет,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достигнет 28 520 000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6,2 процента или 1 760 000 человек будут иностранцами, прогнозиру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реи.

Министерство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публи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Сеул, 26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начнет свой первый ежегодный глобальный опрос в этом году, чтобы оценить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о возможном объединени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Сеула, отвечающее за межкорейские вопросы.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прос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в нескольких странах, включая США, Японию, Германию и Вьетнам.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результатах, мы планируем дополнить политику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и разработать системную стратегию для создания 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реды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 зая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инистерство не предоставило подробностей опроса.

Этот шаг был предприня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недавно пригрозил уничтож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если Сеул попытается применить силу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звав Южную Корею «главным врагом» своей страны.

Обнародован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удущей косм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ки

Сеул, 28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и, что они примут последующие меры для серьезного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KASA), поскольку три законопроекта, касающиеся агентства, были одобрены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В ноябре 2022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лично обнародовал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будущей косм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 создал целевую группу для создания косм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С помощью агент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ится достичь 10-процентной доли (420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путем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более 2000 инновационных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возглавят национальную экономику, основанную на креативных идеях и технологиях, создадут почти 500 000 достой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ят масшта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аэрокосмическ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оздание KASA является началом большого шага Южной Кореи к превращению в глобальную косм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путем оживлени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фактора роста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высадки на Луну в 2032 году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Марса в 2045 году, к 10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науки Ли Чон Х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крыл выставку достиж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30 январ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Н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О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звитии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достижениях в образ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туризме и спорте. Зрители 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акетами крупн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беспилотными летательными аппаратами, фотохроникой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стендами.

Выставка открылась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обранных по приветств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риветствую всех вас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Н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название полностью оправдано! Ведь мы гордимся нашей историе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ыло покончено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именно здесь заверш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Мы гордимся нашими земляками,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тех геро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а потом строили мирную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Гордимся нашими нефтяниками и газовиками, рыбопромысловым флотом, работникам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всех отраслей. Гордимся нашими ветеранами и теми, кто трудится сейчас.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людям область развивается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становится прекрасным местом для карьеры и жизн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авку открывают достижения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которая дала сильнейши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ие нефтяники внесли важный вклад в дело Победы, добыв в 1941-1945 годах около трех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нефт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присвоении Охе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 Город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Помимо фотохрони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тендов, зрители могут увидеть макеты нефтяных платформ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в деталях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ервым в России заводом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ПГ,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Еще одна гордо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рыбопромысловый флот. Оценить его масштабы можно, взглянув на макеты современных судов и одной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когда-то плавучих баз.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При этом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мощно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в два раза. Всего островные промысловики добывают до 700 тысяч тонн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в год.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приобретать рыбу с минимальной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ой.

– Впечатлили макеты судов, плавбазы – все это очень круто,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 и масштабно. Даже не знал, что у нас такое есть. Испытываю гордость за наш регион, за моряков. Здорово, что на выставке широко задействованы мультимедийные решения. Интересное можно найти, даже смотря на потолок, – рассказал студент СаХГУ Иван.

Мостом из прошлого в будущее также стала экспози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островному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Зрителей знакомят с раритетными гусеничными машинами, а также с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которые сахалинские аграрии уже начали применять в своей работе.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лидер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овощами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более 3,8 гектара площадей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строены новые овощехранилища вместимостью 5 тысяч тонн.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меет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олгую историю. Однако у нас успели сложиться целые трудовые династии. Это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ысокого класса, самоотверженные и любящие свою Родину люди – нефтяники и угольщики, моряки, строители, работник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Они чтят историю своих предков, бережно хранят традиции, которые складыв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есятилетиями. Важно,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ддерживают их. В регионе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жизни и отдыха. Выставка наглядно показывает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и знакомит нас с планами по развитию области. Мы видим здесь подходы, которые применялись при создании на ВДНХ выставки-форума «Россия»,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оюза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фсоюзов Александр Кознов.

Отде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заслуживает экспози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островным бойцам СВО и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о их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о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ружие и различное снаряжение.

Более 50 участников выступили на четырёх площад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XXVII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XXVII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прошл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29 января –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А. П. Чехова. Организовал мероприятие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ение личности и творчества писателя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 Традиционно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проводятся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объединяющие людей,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творчество писателя, сопоставляют имена и факты, находят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глубокие истины, проводят но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ю придаёт 225-летие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Сергеевича Пушкина, ведь мног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роводят параллели между творчеством двух классиков,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Ющук.

К участию в «Чеховских чтениях» были заявлены 53 человека: филологи, историки, краеведы, сотрудники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студенты, магистранты. Среди них – 16 кандидатов наук и 3 доктора наук.

– Мы рады,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циклон, который властвовал над островом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нас добрались приглашённые гости. Конференци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ширяет свою географию. В том числе на «XXVII Чеховских чтениях»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был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Чеховской комиссии РАН из Москвы,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з Саратова, Хабаров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В качестве приглашённого эксперта на «XXVII Чеховских чтениях» выступил Владимир Пахомов,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мени В. В. Виноградова РАН,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ртала «Грамота.ру», член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конференции он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в котором осветил нюанс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знаков препина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А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рассказала о том, как в череде чехов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важная дата – день основания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в этом году 17 января ему исполнилось 35 лет.

Далее работ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должилась по секциям.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бсудили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в изучении творчества А. П. Чехова». Секцию провели приглашённый эксперт Владимир Пахомов и доктор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обсуждали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исследованием творчества Чехова. Кроме того, поскольку в 2024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225-летие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 С. Пушкина, ряд заявленных тем был посвящён творчеству классика, его литературным связям с наследием А. П. Чехова.

В рамках секции «Социальный опыт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трудники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Александра Комкова и Анастасия Бурьянова рассказали о выстав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реждения и новых поступлениях за 2023 год. Кроме того, прозвучали доклады о послевоенном Сахалине в публикациях Сергея Феоктистова, произведениях А. П. Чехова в молодежных клубах, «Чеховиа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скульптора Анатолия Н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В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е «РОСТ» провели секцию «Чехов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практике педагогов», на которой рассмотрели проекты по изучению творчества А. П. Чехова в дошко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азработке школьного пособия по книге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формированию культуры речи у дошкольников на примере произведений писателя.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Ирина Романенко рассказала о наследии А. С. Пушкина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А в Чехов-центре прошла работа секции «Историческое краеведение», участие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работники музеев, архива и друг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ие как Игорь Самарин, Виктор Щеглов и др. В том числе докладчики рассказали о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бъектах, названных в честь А. П. Чехова, а самое оживлё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ызвал вопрос преподавания краеведения в школах.

Параллельно с «Чеховскими чтениями» в музее прошла XXVI юнош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ебят – более 20 докладчиков. Среди них учащие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а также г. Шимановск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свои видеовыступления прислали учащиеся из г. Чебоксары и с. Джалинд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воих докладах ребята поднимал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е темы, рассматривая аспекты литератур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раеведения и даже туризма – по следам путешествия А. П. Чехова.

–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самое главное – найти тему. Я услышала доклады на самы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темы,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может быть разработана и далее, и так, по крупицам можно добиться крайне интересных открытий, – поделилась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Центр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Шимановск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огомазова.

Итогом выступл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XXVII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станет публикация сборника, в который войдут вс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доклады.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благодарит за поддержку партнё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им. А. П. Чехова,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универсальную научную библиотеку, лицей №1 и СОШ №3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ск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отметит новоселье в день своего 55-летия

Уже в феврале юные читатели будут посещать областную детскую библиотеку в новом здании. Там созданы самы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общени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и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и твор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аньше учреждение культуры ютилось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ых помещениях жилого дома.

На 2 тысячах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ах расположили залы для малыш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с доступом к Президен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 моби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Литрес», зал краеведения с центром «Этноостров». Актальный зал, оборудованный современным мультимедийным комплексом, вмещает до 100 человек, что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круп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разных форматов. Почти весь книжный фонд будет в открытом доступе для читателей.

– Это настоящий долгожданный подарок всем: и взрослым, и детям. Площадь нового здания в семь раз превышает нынешнюю. Это и методический центр, и место, где дет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будут с пользой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Флярик.

Интерьер нового здания связан с сахалинской тематикой. В ходе ремонта были учтены потребности всех групп посет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и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оздана комфортная входная зона и гардероб, оборудован лифт. Мама с самыми маленькими детьми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пециальной комнатой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 Я записана в детскую библиотеку с первого класса. В прежнем здании у нас была по-домашнему уютная атмосфера, но мало места. Очень хочется увидеть обновленную библиотеку, – поделилась юная читательница Вероника.

Впереди юных читателей ждут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событий в новом комфортном библиоте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библиотеки состоится 20 февраля 2024 года – в день 55-летия учреждения.

Накануне этого долгожданного событ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начала подготовку к переезду: специалисты связывают книжный фонд, упаковывают оборудование. В связи с этим с 30 января по 22 февраля библиотека будет закрыта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читателей. После расстановки книг и подготовки залов к работе с посетителями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будет ждать своих читателей уже по новому адрес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спект Мира, 244.

Почти 7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ыделили на поддержку сахалинским студентам в 2023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уществую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не только для студентов, но и для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с детьми. Некоторые выплаты уникальны для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пример,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гион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едоставляющий студенческим семьям почти 6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В 2023 году 22 сахалинки, ставшие мамами, получили такую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Кроме того,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На сегодня это почти 22 тысячи рублей. Пособи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з учета доходов семьи, а возраст студентов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2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Для нас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 это не просто слово. Она нам помогает крепко стоять на ногах. Быть многодетной мамой непросто, а я еще учу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получаю более 2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мне предоставляли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плюс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вышло более 300 тысяч. И как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мы получили 2 миллиона, которые вложили в покупку квартиры,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Елена Агапо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ддержку получают также иногородние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обучаются в вуз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м компенсируют расходы на аренду жиль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платам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480 сахалинцев на сумму почти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этого, студенческим семьям, чей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ход ниже величины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ежемесяч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ыплата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Также молодая семья мож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особие на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трех лет, беременным на питание,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и други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 Наш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мечал, что всесторонняя система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ежи должна действовать по всей стране, чтобы ею могли свобод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абсолютно все молодые люди. Кроме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многое делается в сфере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социальных лифт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яркий пример. Мы помогаем и студентам, и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Например, выплаты пр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в бюджет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высились до 430 тысяч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В этом году работа по поддержке островных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На эти це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ее 7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호남향우회 연수구 여성회와 주)씨씨엘인터내셔널의 아름다운 나눔 챌린지 함박마을 이주민들에게 쌀 800kg 지원

호남향우회 연수지회 여성회와 씨씨엘인터내셔널(대표이사 송명훈)은 1월 26일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쌀 800kg을 디아스포라연구소를 통해 나눔행사를 하였다.

디아스포라연구소는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디아스포라연구소의 박봉수 소장은 교육학 박사로서 2018년에 함박마을에 등지를 틀고 이주민을 위한 교육서비스, 이주민을 위한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쌀 등 생필품 나눔으로 아름다운 나눔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는 호남향우회 연수지회 위원장 박지영은 "함박마을 이주민이 따뜻한 고국의 품에서 건강하게 정착하길 기원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함박마을 주민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문화다양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연구소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욕(辱)과 욕(欲)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최근 들어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생각에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하긴 화가 있다는 게 놀랄 일도 아니겠지만 스스로 그런 자신이 싫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몸속의 화는 밖으로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답답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입 밖으로 나와 욕이 됩니다. 화가 욕이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욕은 쌍욕이 아니고 험담이라고나 할까요? 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끊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뒷담화'겠네요.

그렇게 험담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험담은 그쪽을 욕망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욕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쪽을 바란다는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계속 제 머리를 맴돌고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가 말로는 욕을 하면서 그쪽을 바라고 살아온 것인가?'하는 생각은 오랫동안 저에게 고통을 주었고, 수행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몸속의 화는 열이 되어 내 속을 빠져 나갑니다. 그야말로 열이 뺏겨나가는 겁니다. 화가 머물러있으면 병이 되겠죠. 화가 머무르면 심장도 뛰고, '헛땀'도 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분출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화가 뺏어 나가는 방향이 실제로 내가 욕망하는 방향이라니 참으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로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멍해집니다.

우리는 정치를 욕하지만 정치를 욕망합니다. 우리는 돈을 욕하지만 돈을 욕망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욕하지만 권력을 욕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처럼 살기를 마음속 깊이에서는 욕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을 욕하지만, 그처럼 살기를 원하니 얼굴이 달아오를 일입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더 부끄럽습니다.

스스로를 잘 모른다면 내가 욕하는 내용이나 대상을 살펴보고 내가 화내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욕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욕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욕망은 욕심이 되고, 욕구가 됩니다. 때로는 욕정이 되고, 때로는 노욕이 됩니다. 바라는 것이 나쁘리 있으면 욕하면서 바라는 모순은 사라지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스스로의 삶을 웃으며 맞이하는 사람은 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욕도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즐거운 일이 많은데 남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겠지요? 하루가 즐겁게 바쁘는데, 욕 속에 빠져 불어라프락 할 일도 없겠지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욕보다 칭찬이 많은 사람은 욕망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보현행원품의 '칭찬여래원'은 그런 진리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칭찬은 구석에만 있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구석에 있는 잘못을 크게 들추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부쩍 늘어난 화와 욕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욕보다는 칭찬을 해야겠네요. 요즘 춥다고 좀 털 걸어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몸속의 화는 걸으면서 풀어야겠네요. 삶속에서 욕이 잦아지는 때는 수행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수행이네요. 지난 밤 꿈자리가 사나워서, 꿈속에 화와 욕이 많아서 아침 일찍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재외동포청 제공)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국내 고려인 동포 민생 현장 방문 인천 함박마을 거주 고려인 현황 점검후 의견청취..."권익신장 나서달라" 이 청장 "동포 보듬기 적극 추진, 고려인 동포 맞춤형 정책 수립하겠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30.(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함박마을의 고려인 동포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려인 동포들과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

이 청장은 대한고려인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내 고려인 동포사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들의 관심 사안을 청취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과 함께 고려인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 등 권익신장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결성된 대한고려인협회는 고려인만으로 구성되었으며(전국에 지회 설치), 국내 거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외국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과 재외동포들의 한국 기여와 공헌 등에 대한 국내 교과서 수록을 통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 사업 등 주요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소외 동포 보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려인 동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나



(왼쪽부터)송정진(협회고문), 김민철(재외동포정책국장) 안 안나(이사, 인천지부장), 정영순(집행위원장), 노송달(회장), 이기철 청장, 재이진(부회장), 이 미아일(서울지부장), 임 나들리(부산사무국장), 박 바래솔(부회회상공인연맹), 안 다니일(협회 청년단장), 정선희(아주사이버동포과장), 함 예브기(충북지부장)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등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2024년 재외동포청 정책돋보기]

'정체성 함양 산실' 한글학교 지원 대폭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교사연수 예산 각 25.7%, 44.7% 이기철 청장 "한글학교와 교사, 차세대 자긍심 제고에 중요 역할"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올해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의 산실 역할을 하는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 세계에는 한글학교 1,46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들 한글학교의 기능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사 사기 진작(교사봉사로 현실화) 등을 위한 운영비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 증액: '23년 14,100백만원 → '24년 17,732백만원 (25.7%) - 한글학교 교사연수 예산 증액: '23년 1,856백만원 → '24년 2,685백만원 (44.7%)

이에 따라 교사봉사로 등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교사연수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교육 활성화, 교사 전문성 제고 등 한글학교의 기능과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봉사로 등 운영비 지원 확대는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한글학교들의 교육환경 및 교사 처우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외동포청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가 재개교하는 한글학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은 교사 연수 예산 확충으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현지연수 지원, 온라인 학위 및 양성 과정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한글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동포청 내 전문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지난해 6.5.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참가한 206명의 한글학교 교사는 지역별 소그룹 토론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한국 알리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다졌다.

특히, 16개국 30명의 교사는 한국 발전상 알리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앞으로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그룹 토론에서는 ▲한인회·한글학교

협의회 등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 당국과의 소통 창구 마련 ▲학부모-교사 협의회 등 현지 교육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한국어 및 한국의 발전상 관련 수업 개설 유도 ▲현지 교육 관계자 대상 한국 발전상 세미나 개최 ▲학부모 대상 수업 개설 ▲현지 교과서 등의 오류 발견 시 한글학교에서 재외동포청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지원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해외 한글학교와 교사들은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 정부가 차세대 재외동포의 교육과 정체성 함양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사봉사로 등 한글학교 운영비와 교사연수 예산 확충으로 한글학교의 운영 환경이 개선되고, 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에 관한 교육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교사들 애국 집회에 참가 준비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위한 지역대회가 조성되는 가운데 지역 교사들이 참가한다고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교사들 모임은 2월 6일로 계획돼 있으며, 3일간 계속되는 훈련기간 동안 교관들은 애국훈련의 교육적 프로그램을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는 학교들에서 기초군사훈련에 따른 수업 진행 방법론을 논의하며, 14세부터 학생들이 군사활동을 배우게 될 <군사>사할린센터를 소개하고, '베를로가' 국가 사이버 물리 플랫폼인 모바일 게임을 통한 기술교육으로 학생들의 대중적인 관심에 따른 기획 분야에서 무엇을 실행할지 논의한다."고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말했다.

교사들은 몇몇 활동교실과 릴레이 경주에도 참여하고, 군사활동에서 무인기 사용에 대해 더 공부하며, 사격훈련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애국 플래시몹도 구성하게 된다.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은 내년 학기부터 교과목 중 기초생활 안전 과목이 없어지고 대신 '조국의 안보와 수호의 기초'라는 새로운 과목이 생기기 때문에 교사들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учителя готовятся к участию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слете

В Углегорс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и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слет, посвященный 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е. В не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учителя регио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стреча педагогов запланирована 6 февраля. Слет

продлится три дня. За это время наставники поднимут тем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ы обсудим методику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й по ОНВП в школах, презентуем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Воин», где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военному делу школьники от 14 лет, обсудим реализацию в области проекта по массовому вовлечению детей в техн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через мобильные игры - национальную киберфизическую платформу «Берлога», -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едагоги пройдут несколько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эстафет. Узнают больше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военном деле, попробуют свои силы в огн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устроят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флешмоб.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учителям важно обладать необходимыми знаниями и компетенциями, ведь со следующе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из программы уберут ОБЖ. Вместо него появятся новые предмет «Основ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щита Родины».

극동 연방관구 최강 탁구선수 사할린에서 결정돼

극동 연방관구 탁구 선수권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위스토크'교육 및 훈련센터에서 5일에 걸쳐 연해주, 하바롭스크·캄차트카·자바이칼리에 변경들, 부라치야 공화국, 사하 공화국, 유태인자치주, 아무르·мага단·이르쿠츠크·사할린주들에서 출전한 85명의 선수들이 최강자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탁구 경기는 단식, 복식, 혼합복식,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사할린주 스포츠부 스타 슬라브 쥘린 차관은 "벌써 세 번째 극동지역에서 탁구 종목의 경기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탁구는 엄청난 집중력과 순발력, 속도와 기술이 요구되는 매우 어려운 스포츠 종목이다. 경기를 치르는 동안 진정 흥미롭고, 볼 만한 경기를 보여주었으며, 공정한 경기 결과에 따라 최강자가 결정되었다. 우승자들에게 축하드리고,

모든 경기 참가자들에게는 지속적인 훈련을 지원하며, 그때 성공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녀 단체전에서는 부라치야 공화국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연해주팀이 차지, 3위에는 남자 단체전 자바이칼리에 변경 팀과 사하 공화국 팀이 차지했으며, 여자 단체전에서 마가단주와 하바롭스크 변경 팀이 차지했다.

Сильнейших игроков ДФО в настольный теннис определили на Сахалине

Чемпиона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В течение пяти дней в стенах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звание сильнейших оспаривали 85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Примор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амчатского,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ев, республик Бурятия и Саха (Якутия),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Амурской, Магаданской, Иркутской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Игры проходили в одиночном, парном, смешанном парном и командном зачётах.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принима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этому виду спорта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Настольный теннис — очень сложный вид спорта, требующий огромной концентрации, мгновенной реакции, скорости и, конечно, техники. В течение этих дней вы показывали по-настоящему захватывающие и зрелищные игры, по итогам которых в честной борьбе определили сильнейших. Я поздравляю победителей, а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желаю продолжать тренировки, и вас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ждать успех впереди!» — обратился к спортсменам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нислав Тюрин.

В команд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среди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команды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Вторые места заняли примор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На третьей ступени пьедестала расположились команды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и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среди мужчин, а также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среди женщин.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p> <p>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